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의 나라입니다.**

제임스 김 목사

목차

서론	4
시기와 기회	5
위기는 기회입니다	10
불가능함은 기회입니다	14
실패는 기회입니다	18
연약함은 기회입니다	21
궁핍함은 기회입니다	26
분쟁은 기회입니다	31
불평은 기회입니다	34
염려는 기회입니다	37
슬픔은 기회입니다	40
막힘은 기회입니다	42
갈힘은 기회입니다	48
탈진은 기회입니다	51

고난은 기회입니다	55
두려움은 기회입니다	62
괴로움은 기회입니다	68
원망의 소리는 기회입니다	71
마음의 놀림은 기회입니다	75
환란은 기회입니다	80
죽음은 기회입니다	84
광야는 기회의 장소입니다	88
결론	91

서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오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교회인 승리장로교회의 미션진술(Mission Statement)은 “Build His Church, Build His Kingdom”(그분의 교회를 세우므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자)입니다(마16:18). 이 미션을 성실하게 이루고 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저희 교회의 비전(Vision)인 일꾼을 세우고 계십니다. 일꾼을 세우시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므로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사 이 세상에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계십니다. 확장하시되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각 나라로 보내시는 일꾼들을 통해 그 나라 현지인들 중 귀한 젊은 일꾼들을 만나게 하시사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계시며 또한 저희 교회로 하여금 물심양면으로 돕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그 젊은 일꾼들을 통해 그 나라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도구인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마6:10). 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주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기도의 책임을 묵묵히 신실하게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데 헌신을 했습니다(33절). 즉,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의로우신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받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헌신을 했습니다(막8:35).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 헌신하여 우리 각자의 책임을 묵묵히 신실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의 나라입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목 아래 지금까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 중 몇 개만을 골라서 이렇게 편집을 해보았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의 나라임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경험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0년 2월.

제임스 김

시기와 기회

언젠가 인터넷 CNN 뉴스에 한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좀 읽어 보았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하버드 대학 캠퍼스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미첼 하이즈만이란 한 35살 난 사람이 유대인들의 속죄의 날(Yom Kippur)인 9월 18일 토요일 한 오전 11시 쯤 자살을 했는데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1,905 페이지나 되는 유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유서를 가리켜 “자살 노트”(Suicide Note)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자살 노트에는 소크라테스, 뉴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또한 자유, 허무주의, 하나님, 유대교, 유대인 기호, 유대인의 IQ는 앵글로 색슨의 역사에 관한 지혜에 관한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저는 이 내용들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가 인생(Life)에 대해서 한 말 중 공감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다름 아닌 “Life is meaningless”(인생은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읽으면서 스치고 지나갔던 생각은 바로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미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을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자기 자살 노트에 쓴 이 사람의 기사를 읽으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삶의 헛됨은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는 분명히 자살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최선을 다해 살려서 주님을 위해 살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을 위해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죽었다면 결코 헛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히 보시는 성도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요즘 “타이밍”(timing)에 대해서 좀 생각하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려보려고 노력하다가 언제 그 노력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장인 어르신 때문입니다. 그분의 주치 의사는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의학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포기하고 마지막 떠나시는 그 날까지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하는데 좋다는 권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하는 장모님을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밍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의사 선생님이 포기하고 마지막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예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첫째 아기가 병들었을 때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와 원수로 크게 훼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삼하12:14)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했습니다(16절). 왜 그가 그렇게 간구했습니까? 그 이유를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어니와.”

성경 전도서 9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저자 솔로몬 왕은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but time and chance happen to them all)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우연”이란 한국어 번역은 오역이라는 것입니다(박윤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서 그저 우연히 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Good luck”이란 말, 즉 “행운을 빕니다”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 합동측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혁개정판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1절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개혁개정판은 “우연”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기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솔로몬 왕이 말씀하고 있는 “기회”(chance)란 무엇입니까? 인터넷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니까 “기회”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한자 사전을 보니까 “기회”란 “기대하던 그 때, 일을 하기에 적당한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포착하여 일을 하므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success)이 아닙니까? 그러면 성공을 하기 위해서 기회를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되 앞으로 다가 올 기회를 충분히 살려서 성공하기 위해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 전도서 9장 1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한 다섯 부류의 준비된 사람들, 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삶의 기회를 준비하는 자들로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잘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빠른 경주자들”

빠른 경주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경주에서 일등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빠른 경주자들은 더 빨리,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려고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라는 기회가 주어 질 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골라인을 향하여 열심히 달릴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골라인에 들어가서 1등을 하기 위해입니다.

(2) “용사들”

용사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군인들은 진정 용맹스러운 군인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지혜자들”

지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 잘 사용하여서 살림에 보탬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저 쓸모없는 지식으로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면서 사는 자가 되고 싶은 지혜자는 없을 것입니다.

(4) “명철한 자들”

명철한 자들 또한 자기의 똑똑한 두뇌를 사용하여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자 힘쓸 것입니다.

(5) “지식인들”

이들은 열심히 배워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은총을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섯 부류의 준비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성공을 기대하며 기회를 포착하여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나.” 아무리 잘 달리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도 경주에 일등 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는 등등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발생하는 사건들로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박윤선).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이러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거기 필요한 조건을 구비했다 할지라도 자력으로 성공을 가져올 듯이 교만하면 안 된다. 그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우리 인간의 본능은 자기의 자력으로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길 원하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 8장 17-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 사람들이 잘 나서(능력이 있어서) 재물을 많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왜 우리는 이러한 허탄한 자랑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울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여 기회를 포착하여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 밖에 일도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 밖에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홀연히 임하는 재앙의 날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듯이, 그리고 새가 울무에 걸림같이 우리 인생에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8절을 보면 성경은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전도서 8장 6절에서 “무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다(For there is a proper time and procedure for every matter)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홀연히 임하는 재앙의 날에도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바로 이 모든 것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3:11, Wiersbe).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어가도 있지 않고 오히려 재앙처럼 여겨질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둔 것을 내려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홀연히 임한 재앙의 너무나 어둡고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조차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내 때(My hour)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2:4, 7:6, 8, 30, 8:20, 12:4, 23, 27, 13:1, 17:1).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때’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 때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때란 하나님의 아들로써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시기와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24:36). 그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완성으로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 때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 아기 주영이의 죽음을 통해서도 아름답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임스 목사 나눔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여정에 오는 위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는 위기를 접할 때 “왜 이런 위기가 나에게 닥쳤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위기가 온 것이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는 생각하며 그 사람(들)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원망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위기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위기의 늪에 깊이 빠져 들어가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면서 낙망과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위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위기의 반응일까요?

첫째로, 위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7장 23-25절 문맥을 보면 위기를 만난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275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위기가 온 원인은 바로 바울을 이달리야로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1절) 바울의 말보다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11절). 여기서 바울의 말은 “간신히”(7, 8절) 배가 미항이라는 곳까지 이르러(8절) 행선하기가 위태하므로(9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10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배를 행선했습니다(12절). 그리했을 때 백부장 율리오나 선주나 선장은 처음엔 남풍이 순하게 불므로 자신들이 득의한 줄 알았습니다(13절). 즉, 백부장 율리오와 선주, 선장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쿨로라는 광풍이 대작해서(14절) 배는 태풍에 휩쓸려 바람을 뚫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므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15절, 현대인의 성경). 이 위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두려워하였고(17절) 나중에는 구원의 소망도 다 없어졌습니다(20절). 그 와중에서 바울은 그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 뿐이리라”고 권했습니다(22절).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권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24절). 즉, 바울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위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전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제 자신의 음성이나 상황에 저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첫째 아기가 중환자실에 누워있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그 고통당하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그 아기가 접한 상황으로 하여금 제 마음에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담당 의사를 통하여 아기를 천천히 죽게 하겠느냐 아니면 빨리 죽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가 그 다음 날 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시편 63편 3절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첫째 아기 주영이의 55일의 삶보다 나으므로 저나 아내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저희 부부는 그 날 아침 병원으로 가서 아기를 빨리 죽게 하겠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과 형 부부와 여동생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 아기에게 연결된 모든 기계들을 다 끊은 후 아기는 제 품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 후 아기를 화장한 후 아기의 뼈 가루를 호수에 뿌리고 나서 육지로 돌아오면서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My Savior’s Love”(나의 구원자의 사랑)를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누린 은혜였습니다.

둘째로, 위기는 이웃을 사랑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접할 때 나-중심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됩니다.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첫째 아기 주영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55일 기간 동안 저희 부부는 주영이게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저에게 하루는 아내가 우리가 너무 “self-absorbed”(자기 몰두)가 된 것 같다고 말을 해 줘서 알았습니다. 그 때 저희 넷째 삼촌과 막내 삼촌이 하시던 봉재 공장 사업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저는 제 첫째 아기에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변명은 회사가 부도날 상황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지 못했던 저의 불찰이요 미성숙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접한 위기를 이웃 사랑하는 기회로 삼을 줄 압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타고 있던 배가 파선되어 자기와 더불어 배에 타고 있었던 275명의 사람들(37절)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을 때에도 오히려 함께 하고 있었던 275명의 사람들을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22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고 권했습니다(25절).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25절).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로 부터 들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24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에 그는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을 안심하라고 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의 불확신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누리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을 위로하며 권면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웃 사랑 계명에 순종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이웃 사랑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셋째로, 위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들을 위로하며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서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너희 중 머리터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음식을 먹을 것을 권면했습니다(34절). 그리고 그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gave thanks to God)하고 떡을 떼어 먹기를 시작했을 때(35절) 다른 사람들도 다 안심하고 떡을 받아먹었습니다(36절). 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어떻게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또한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구원의 소망을 현실화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체험할 때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삶 속에 위기는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세우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위기를 통하여 우리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여정에 오는 위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위기를 이웃 사랑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며 권면하며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삶의 여정에 오는 위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줄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조차도 사용하시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뤄 나아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분명히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불가능함은 기회입니다.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 불가능이란 것은 수 없이 많다.’ 그 이유는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점점 더 많음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 자신만 보아도 저의 나쁜 습관도 잘 고쳐지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데로 저는 행동도 하지 않을 때가 수 없이 많고, 왜 제 마음은 그리 제 맘대로 변하지 않는지 모두 다 제 능력 밖에 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안되는 게 얼마나 수 없이 많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못하고 못하고 못하고 못 이겨 나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보고 직시하게 될 때 참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실망도 되며 심지어 어쩔 때는 절망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언젠가 성경 민수기를 읽다가 민수기 13-14장을 주목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그 두 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족장들 중 두 사람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보고하였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의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 10명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강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장대한 자들로서 그들이 올라가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고 악평을 하였습니다. 그들과 비교해 볼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13:28-33). 그러므로 그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14:1-2). 그러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서로 말했습니다(4절). 이 소리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 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11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나 자문해 보았습니다. 불신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범죄요 불신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결코 가볍게 여겨야 할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를 즐겨 부릅니다. 특히 후렴 가사를 좋아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찬송을 좋아하는 이유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롬4:18). “믿음이란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써 그 대상이 분명히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약에 나타난 믿음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를 깨닫고 완전히 인정하는 것,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전적인 의존을 말하는 것이요, 구원의 하나님인 주님께 대하여 의심이나 변함없이 신뢰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 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계시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응답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히11:1). 증거는 '확신'을 말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내적인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내적인 확신입니다. 그러나 이 확신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억지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낸 사람들입니다. "사람으로는 아니 되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일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막10:27). 믿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믿음은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한 길로 열어 놓습니다(인터넷).

성경 로마서 4장 9-17절을 읽다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받치고자 단에 자식을 묶어 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면서 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죽은 자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습니다(창22:10; 히11:17, 19).

(2)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 즉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들과 해변의 모래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창15:5; 히11:12).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저는 그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접한 바랄 수 없는 상황, 즉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로마서 4장 1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 즉, 아브라함이 접한 바랄 수 없었던 상황, 소망이 없었던 상황은 자기나 자기 부인인 사라나 의학적으로 전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 인간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소망이 끊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주님 안에서 소망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란 로마서 4장 18절(인용: 창15:5)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네 후손이 이같이리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나 아내 사라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 그의 자손이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바랄 수 없는, 참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19-20절). 로마서 4장 19-20절을 보십시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보통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믿음이 약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마음이 더욱더 흔들릴 텐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분히 설득 당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을 보십시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 하였으니” (being fully persuaded that God had power to do what he had promised). 여기서 ‘확신 하였으니’라는 말씀을 “확신케 되었으니”란 말씀입니다(박윤선).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믿도록 충분히 설득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 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 간주되었습니다(22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23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입니다(24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인(24절) 바울 시대 로마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믿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에서 부활하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줌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25절). 한 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칭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이미 받았습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기업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으므로 우리의 소망이 더욱 커지길 바랍니다(찬송가539장 3절). 그리고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뵈을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엿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길 기원합니다(4절).

오직 믿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실패는 기회입니다.

언젠가 새벽기도회 때 찬송가 395장인 “너 시험을 당해”를 하나님께 찬양드렸습니다: (1절)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후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네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제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 이유는 저는 신앙생활은 분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분투에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언젠가 아버님이 자신이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배우신 교훈 “돈과 여자와 명예” 이 세 가지 유혹을 경계해야 할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또 기억나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란 유혹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유혹들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수시로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유혹들에 넘어가 범죄하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한 듣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단과 싸워 승리하고 싶은데 왜 자꾸만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실패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31절)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33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35절). 왜 베드로는 이렇게 결심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마디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마16:23).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22절).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는데(26:31) 베드로는 그 말씀의 성취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그 말씀의 성취를 거부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웬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의지에 이끌림을 받지 않으나 생각됩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41절). 그는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셔서(38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셨을 때(39절) 오히려 졸고 있었습니다(40, 43절).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38절)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졸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해야 할 수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깨어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였기 때문입니다(41절). 결국 베드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므로(41절) 예수님을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되(70절)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72절)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74절). 그렇게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후 닭이 곧 울었을 때(74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인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75절).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그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고 다시금 자기의 옛 본업이 어부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봅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베드로는 다시 고기를 잡은 어부로 돌아간 것입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었나요? 실패하고 또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후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세 번 부인한 베드로, 즉 실패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세 번 하신 후 그에게 전 보다(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더 큰 사명[“내 양을 치라”(16절), “내 양을 먹이라”(17절)]를 주셨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왜 예수님께서서는 자기를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서는 실패(범죄)한 베드로, 그러나 통곡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한 베드로에게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후(21:15ff) 더 큰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 날 이제 더 이상 졸지 않고 모든 약 120문도와 합심하여 기도를 함께 하였던(행1:15) 베드로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사(2:1-4) 더 이상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마태복음 26장에서 그가 고백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33절)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35절)라는 결심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입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4:7),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5:8-9).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새벽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들춰내시고 회개케 하신 죄를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말씀 전파를 마친 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마음이 몽클하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죄인,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교만한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회 때 졸면서 기도하는 목사, 아무 자격이 없고 실패하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는 제가 무엇이 관대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사명을 주시는 것인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마음이 몽클하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늘까지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살아가길 기도하였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시116:2),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연약함은 기회입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부목사 경험도 1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가 쪽 자라났던 승리장로교회에서 아버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고 계실 때 부목사로 딱 1년 섬긴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 후 저는 탈진하여 요나처럼 아버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한국으로 도망갔습니다. 한국에 가서 서현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그것도 영어사역을 섬기다가 나중엔 새 가정부도 좀 섬겼었습니다. 그것도 다 합쳐서 2년 9개월뿐이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되는데 경험이 다는 아닌 줄은 압니다. 그저 그만큼 부족한데 주님께서는 교회갱신목회자협회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주시므로 다시 승리장로교회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목사님은 은퇴하시고(선교사로 섬기심) 제가 담임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금년 12월 21일이면 5년이 됩니다.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볼 때 언젠가 아내가 저에게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 ‘James, you have changed’(제임스, 당신은 변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된 후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그 말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인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웬지 “담임 목사”라는 직분이 저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전처럼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허심탄회하게 말도 못하고, 교제도 마음 것 못하면서 늘 교회 목양실에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가 뭐 길래 내가 이렇게 변했는가”하는 생각도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담임 목사”란 직분에게 주어진 압력(pressure)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정신적인 압박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가 되니까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낄 뿐만 아니라 제가 제 자신에게 부여하는 압력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런 저런 신경 쓰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원치 않는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마음이 참 무거울 때도 종종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제 마음엔 종종 놀리는 일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새벽기도회를 준비하고자 어제 저녁에 성경을 읽다가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놀리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바울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혹여나 성도들이 연약하여 실족하게 될까 봐 염려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을 보십시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러한 바울의 염려, 그의 애타는 마음에는 두려움조차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란 사단이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들의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3절).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그가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4절)을 용납하여 믿음에서 떠날까봐 염려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짓 사도요 케흠의 역군”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13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14절) “사단의 일군들도 자기를 의의 일군으로 가장”하므로(15절) 믿은 자들을 미혹하여 진리에서 떠나 믿음을 배반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성도들을 향한 염려로 인하여 바울은 날마다 마음이 눌렸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에게는 이러한 마음의 눌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에게는 성도들을 향한 염려로 인하여 속에 눌림이 있어야 합니다. 혹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 떼들 가운데 연약하여 가장한 사단의 일군들에게 미혹되어 믿음을 떠나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염려해야 합니다. 물론 이 염려 외에도 목회를 하다 보면 다른 많은 염려들이 있겠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염려해야 할 것은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영혼 구원에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지 안 있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염려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눌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눌린 마음을 소성케 해 주실 것(restore)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에 새 활력을 넣어 주실 것(refresh)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마음을 부흥케 하실 것(revival)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떠나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했습니다(12:20). 또한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에서 떠나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의 죄를 범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21절).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러한 죄를 범한 후 교회가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했습니다(21절).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하여 바울의 마음은 눌려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그가 깨닫는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11:30).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했습니다(12:10).

교회를 향한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눌릴 때 어떻게 자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약함을 들춰내실 때에 자신을 향한 실망과 낙망 속에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편 43편 5절 말씀으로 제 영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 이렇게 제 자신의 영혼에게 부르짖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절 때는 자포자기 하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 마음이 아파 고통스러워 어느 누구의 위로도 거절하는 제 자신의 모습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며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1:30, 12:10).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므로 우리의 마음이 눌릴 때(Pressure)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 7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1) Pray (기도하십시오):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눌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므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갈 때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됨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의 충족한 은혜(sufficient grace of God)를 구해야 합니다.

(2) Put your hope in God (당신의 소망을 주님께 두십시오):

염려로 인하여 우리는 마음이 눌리고 더 나아가서 들춰지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낙망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43:5)고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외쳐야 합니다. 즉, 우리는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3) Preservation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실 줄 믿으십시오):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신앙이 염려될 때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므로 그들을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기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한 목사나 교사인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십니다(마16:18).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4) Press on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외부적으로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행20:24). 그리고 그는 내부적으로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였습니다(빌1:24).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놀릴 때에라도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풋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5) Perfection (주님의 온전함을 추구하십시오):

성경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외에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의 온전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온전해야 합니다.

(6) Persevere (인내하십시오):

교회를 향한 염려로 마음이 놀릴 때라도 우리는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마16:18)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참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분명히 인내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7)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염려로 마음이 놀릴 때 우리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놀릴 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고전12:9).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며 기뻐하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9절). 그러므로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였던 것입니다(9절). 그는 자신의 여러 약함을 자랑하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여금) 내게(자기에게) 머물게 하려” 하였던 것입니다(9절).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2:20).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교회를 섬겼던 바울은 자기의 여러 약함 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비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채워져 그 능력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저도 바울처럼 제 자신의 여러 약함을 자랑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채워져 주님의 몸 된 승리장로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의지하면서,

제임스 목사 나눔

공핍함은 기회입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영똥한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 보았습니다. 그 영똥한 질문이란 ‘과연 아기 예수님도 보통 아기들처럼 두 손을 꼭 움켜지고 태어나셨을까?’였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도 듣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공수래공수거)는 말과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아기들을 보면 다들 두 손을 꼭 움켜지고 있고 그 아기들이 자라나 아이들이 되어서 말을 하기 시작할 때를 보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It’s mine”(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더 자라나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자 무던히도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결국 노인이 되어서는 죽을 때에는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결국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얻고자(gain) 참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웬지 신앙생활이란 버리고(lose) 또 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의 욕심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등등 인생을 끊임없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두 손을 벌려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죽을 때에 두 손을 벌려 아무 것도 움켜지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 디모데전서 6장 8절은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먹을 것과 입을 것 외에 이것저것 없어서 불만족하십니까? 웬지 우리는 마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이것저것 없다고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족한 줄을 모르고 부 하려고 하는 가운데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우리 자신을 찌르고 있습니다(딤후 6:9-10).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데 말입니다(약1:15). 제 자신을 이 말씀에 비취 보면 먹을 것도 많아서 오히려 음식을 남겨 버리는 죄를 범하고 있으며(요6:12) 입을 옷들도 너무나 많아 얼마 전에서 쓰레기 여러 봉지 안에 안 입을 옷들을 넣어서 다 Goodwill이라는 비영리 단체에 기증했습니다. 한 마디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먹고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에게 ‘저는 과분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지 않으면서 있는 것들 외에 자꾸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만족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저의 양심에 찔림이 됩니다. 참 한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풍족함으로 인하여 제 마음과 양심에 지방(fat)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살찌워져 가야하는데 육적으로 살찌워져 가고 있으니 만족해하기보다 불만족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저에게 살 좀 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과 양심에 붙어 있는 지방을 빼라고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운동도 해야 하고 먹는 것도 조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잘 먹고 그 먹은 말씀을 소화시키고자 신실하게 순종하여 제 마음과 양심의 지방을 빼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양심이 건강하여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는 것(이미 은혜로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던 것처럼(신8:4) 하나님께서 저의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살아가야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덩으로 주신 것인 줄 알고 족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성경 룻기 1장 1-5절을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엘리멜렉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서(룻1:1) 그는 풍족한 가운데 있었는데(2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흉년이 든 유대 땅에 계속 살던지 아니면 흉년이 들지 않은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던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의 선택은 다른 지방으로 이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인 기론과 말론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갔습니다(1절). 그리고 엘리멜렉은 모압 지방에서 오래 살려고 이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단어 “우거”라는 히브리어 언어의 뜻 가운데는 “잠시”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멜렉은 잠시 위기를 모면하고자 살고 있던 유다 베들레헴을 등지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간 것입니다. 그의 실용적인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압 지방에서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첫 번째 사람 엘리멜렉을 생각할 때 한 마디로 그는 흉년에 자신의 풍족함을 지키려다가 결국 자기 생명을 잃고만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더불어 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시는 “흉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흉년”이 필요하다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접하는 삶의 “흉년”이 경제적인 “흉년”이든 환경적인 “흉년”이든 실제로 자연적인 “흉년”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흉년”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분명히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가지고(눅15:12)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그는 먼 나라로 갑니다(13절). 그리고 그는 거기서 이미 아버지께 받은 재물을 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13절). 그 재산을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결국 탕자는 비로소 궁핍해 집니다(14절). 우연이었을까요? 탕자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없앤 후에 그가 거하던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던 게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탕자가 거하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탕자를 궁핍케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탕자로 하여금 풍족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게 하시므로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흉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흉년”이 왔다고 하여 엘리멜렉처럼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그리고 자신의 풍족함을 지키고자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오는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여(잠3:5)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은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오는 위기인 “흉년” 뒤에 숨겨져 있습니까? 바로 회개의 축복입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흉년”은 우리로 하여금 궁핍케 하므로 풍족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궁핍함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풍족한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 때에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의 풍족했을 때를 그리워하면서 그 과거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과거의 풍족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부딪칩니다. 부딪치데 그는 왜 자신에게 이러한 궁핍함이 임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몸부림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를 씁니다. 그리할 때 그는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탕자의 이야기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회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풍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찬송가 338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물론 모든 “흉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한 예로 우리는 창세기 42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창42:5). 가나안 땅만 기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의 꿈대로 (그리고 요셉의 꿈 해석 되로) 각국에 기근이 있었습니다(41:54). 애굽 온 지면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57절).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55절). 점점 심해지는 기근으로 말미암아(57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알게 되어(42:1) 자기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2-3절).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당시 애굽의 총리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젓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게 하셨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워하여(37:8) 그들 죽이려다가(20절)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판(28절) 그의 형들의 죄를 회개케 하시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근도 사용하셔서 야곱과 그의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과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자(45:5, 7) 요셉의 삶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사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웬지 하나님께서 야곱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 뿐만 아니라 애굽의 온 지역에도 기근을 들게 하신 이유는 요셉의 형들을 회개케 하시고자 하셨다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셔서 거기서 약 400년 거주하게 하시고 핍박과 환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시므로 결국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사(구원해 내시사)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한 마디로,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기근의 목적은 회개라기보다[물론 요셉의 형들은 회개하는 것 같아 보임(42:21-22)] 구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접하는 “기근”으로 말미암은 궁핍함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이 …, 어느 누가 점점 심해지는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들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흉년”이란 위기를 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엘리멜렉처럼 그 위기를 모면하여 자기의 풍족함을 지키고자 자기의 뜻대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많은 궁핍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한 우리 마음에 확신도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록 우리가 왜 우리 삶 속에 “흉년”이 와서 우리가 궁핍해 졌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흉년”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탕자처럼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요셉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적 가족 식구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과 같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흉년”과 궁핍함을 부딪혀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풍족함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궁핍함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

궁핍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부함을 경험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분쟁은 기회입니다.

교회 분쟁,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랑해야 할 교회가 왜 서로 다투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교회의 분쟁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다양성을 인정 못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부부의 분쟁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당신과 나는 그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부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좀 다를 뿐이다’(We are just different)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 ‘당신은 틀렸다(잘못됐다) (You are wrong)라고 할 때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결과 부부는 다투게 되고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관계가 ‘당신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를 보면 다투며 싸우는 이유는 ‘그저 다를 뿐인데 당신은 틀렸다’라는 생각과 자세로 서로를 대하므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자세 가운데 ‘나는 맞는데 …’라는 교만함의 쓴 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나는 맞는데 당신은 틀렸다’라는 뿌리 깊은 생각이 도사리고 있기에 상대방을 비판하고 결국은 비방하기까지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분쟁의 깊은 원인은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원인은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즉,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난 지혜롭고 당신은 미련하다’는 자세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지요 정욕적이지요 마귀적”입니다(약3:15).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14절). 만일 자랑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14절).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약3:18) 우리에게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은사’ 기준으로

다른 지체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판단하며 비판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회의 분쟁이 있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고전3:1) 우리 가운데 시가와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하고 젓을 먹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않습니다(2:13). 육신의 속한 자들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합니다(2:14). 그 이유는 성령님의 일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14절). 또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님을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14절).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에 동참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성령님의 일들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엡4:3). 분명히 바울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고전3:3). 사람을 따라 행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요즘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나는 모 담임 목사님에게,’ ‘나는 모 부목사님에게’라고 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부 목사님은 바울이나 아볼로처럼 그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인데도 말입니다(5절). 더 큰 문제는 평신도가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바울과 아볼로처럼 주님께서 각각 주신대로 맡겨주신 양떼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뿐일진대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망각하여 양 떼들을 갈라놓는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바울과 아볼로처럼 심고 물을 주는 자들일 뿐인데(6절), 즉 “아무것도 아니”데 (nothing)(7절) 뭔가가 된 것(something)처럼 착각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심고 물을 주는 것뿐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십니다(7절).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뭔가가 된 줄 착각하며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everything)이 되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망각하므로 말미암아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육신에 속한 평신도보다 육신에 속한 우리 교회 지도자로 말미암아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쟁을 막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신령한 자들”이 돼야 합니다(1절).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13:11). 우리는 더 이상 젓을 먹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2:10).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1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13, 14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서(16절) 주님의 그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해야 합니다(찬송가 246장, 1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의 교회를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비록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을 수 있으나 구세주 되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찬송가 347장, 1절).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은 지체들이 모여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우리 모두가 서로 마음을 같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모두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빌2:5). 자기를 비우며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로부터 온 지혜로 서로 관용하며 화평한 가운데서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을 충분히 사용하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엡4:3).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힘써 지켜 나아가길 원하는,

제임스 목사 나눔

불평은 기회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못마땅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할 때 자꾸만 불평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데 ….

성경 출애굽기 17장 3절을 보면 모세에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불평한 이유는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1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였습니다(1절). 그 때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말했습니다(2절).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고 말했습니다(2절). 그러나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라고 불평했습니다(3절). 어느 정도로 그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했는가 하면 그들은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까지 한 것 같습니다(4절). 왜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7절 후반절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계신가 하였음이더라”[(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 다투고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하고 떠들어댔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므로 모세에게 불평(원망)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달게 만드신 이적(출15:22-25)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모세에게 불평한 것입니다(17:3). 그 불평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4절). 그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5절) 그 지팡이로 시내 산 바위를 치라(6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했습니다(6절).

시편 37편 1, 7-8절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을 보고(7절) 불의를 행하는 악인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시편 73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수년 전에 어느 장로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데 악인은 형통하는지…?’라는 질문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시편 73편을 묵상케 하시사 그 질문의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악인의 형통”이란 주제를 묵상할 때마다 시편 73편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 아삽도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입니다(시73:1).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며(4절) 고난과 재앙도 없는 악인들(5절), 그들은 살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은 것(7절)을 보았을 때 아삽은 그 악인들을 보고 시기하여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2절). 특히 그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12절) 아삽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13절).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데 악인은 형통하는 것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아삽이나 다윗처럼 그 악인들을 시기할 수 있습니다. 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는 형통하는 악인들을 보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37:8). 그리고 우리는 불만족 속에서 충분히 불평하고 또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1, 7, 8절).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37편 1, 7, 8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그리고 세 번이나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it leads only to evil”)(8절, 참고: 73:15).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기하므로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게 되면 죄악을 범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악인들은 속히(37:2, 36) 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9, 22, 28, 34, 38절). 어느 정도로 속히 끊어질 것인가 하면 마치 푸른 채소가 속히 쇠잔하는 것처럼(2절) 악인들은 속히 끊어질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기자 아삽은 그 사실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73:17).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바로 악인의 종말입니다(17절). 악인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파멸입니다(18절). 파멸이되 악인의 종말은 “갑자기” 황폐되는 것입니다(19절).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님께서 깨신 후에는 악인들을 멸시할 것입니다(20절). 여러분, 악인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끊어질 것입니다(37:9).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분명히 끊어질 뿐만 아니라(22절) 그들의 자손들도 끊어질 것입니다(28절). 그리고 그 범죄자들의 미래도 끊어질 것입니다(38절). 우리는 악인들이 끊어질 것을 똑똑히 볼 것입니다(34절). 그러기에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그들을 시기하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3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고 삼아야 합니다(3절).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4절).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4절).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5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5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7절).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9절). 그리고

우리는 온유하며(11절) 온전해야 합니다(37절).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11절, 참고 37절).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하면 마음에 불만족이 생깁니다. 불만족이 쌓이게 되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불평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원인은 마음에 불만족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불만족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그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1)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부족할 때에도 불신 속에서 불만족하면서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으면(빌4:12) 우리는 궁핍할 때에도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다한들(고후12:7)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기 때문입니다(9절). 족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2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염려는 기회입니다.

제가 요즘 염려하는 것 중 하나는 우울증이나 공황 장애 및 치매로 고생하는 형제, 자매님들입니다. 또한 저는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식구들을 생각할 때에도 염려가 됩니다. 저는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괴로울까 생각하면 마음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저는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벧전5:7) 저는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난 후 돌아서면 그들이 생각날 때 또 다시 염려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제 염려를 다 주님께 못 맡기고 있기 때문이겠죠. 제 믿음이 적어서 그렇고요.

성경 누가복음 12장 26절 문맥을 보면(22-34절)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22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29절)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25절). 우리가 염려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아무 유익도 안 되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2)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26절). 이처럼 사소한 일도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까지 염려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26절, 현대인의 성경). (3) 그 세 번째 이유는,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마6:32, 현대인의 성경). (4) 그 네 번째 이유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눅12:30,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또 염려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28절).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기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우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22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까마귀를 생각해야 합니다(24절). 우리는 공중의 새를 보아야 합니다(마6:26). 아직도 기억납니다. 지난번에 영어사역 연합 수련회를 산으로 가서 아침에 숙소 밖 뒤 베란다에 있는 의자에 앉아 날라 다니다가 나무에 앉았다 하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어 알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저는 그 새들을 보면서 잠시나마 그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도 기르고 계시는데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 나를(사43:4)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기르시지 않으시겠는가.’ 실제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기르시사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풍족히 주셔서 음식이 없어서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한 번도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음식이나 옷이나 넘치도록 과분하게 누리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저런 일들로 염려를 합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염려합니다(마 10:19). 또한 저는 “세상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합니다(고전7:33). 저는 교회 일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고후11:28, 참고: 눅10:41). 교인들 중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날까봐 염려합니다(신29:18). 특히 저는 제 자신이 사탄의 유혹에 빠질까 염려합니다(딤후3:7). 이렇게 저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눅21:34) 또한 이렇게 세상의 염려를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혀 결코 결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막4:19). 저는 이러면 안 되다는 것을 알면서도(막4:19) 지금도 여러 가지 일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일 때문에도 염려를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미래) 일루도 염려를 합니다. 이러한 저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마 6:34).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싶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염려한다고 그 염려하는 일들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만 염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을 염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작아서이겠지요. 저를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일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견고히 믿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그런 것들을 구하기에 급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마6:33)을 믿음으로 붙잡고 제 마음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 굳건한 믿음을 구할 뿐만 아니라 제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헌신하길 원합니다(롬10:17). 그러면서 저는 종종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려고 합니다. 또한 저는 꽃이 어떻게 자라나는가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마6:28).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도 기르시고 꽃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새와 꽃보다 훨씬 귀한 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혀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염려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막4:19) 나(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벧전5:7)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슬픔은 기회입니다.

슬퍼할 줄을 알아야 하는데 ... 저는 2019년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마음의 무거운 슬픔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으로 인해 마음의 몽글한 눈물이 고이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님께서서는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And the God of all grace, who called you to his eternal glory in Christ, after you have suffered a little while, will himself restore you and make you strong, firm and steadfast"("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벧전 5:10). 그 때부터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자녀가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께서서는 다시금 회복시켜주시되("온전하게 하시며") 그 자녀를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길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개월 후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는 주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성취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성취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을 마무리하는 12월에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죽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셨지만 1월처럼 감당하기 힘든 마음의 무거운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넉넉히 감당케 하시는 은총을 누리면서 오히려 주님께 "순교의 선물"을 구하게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영혼이 되길 기원했습니다(계시록 6:9-11).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눈물(tears of thanksgiving)을 흘립니다. 나 같은 죄인의 간구도 들어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눈물(tears of prayer)을 흘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사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의 눈물(tears of prayer)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은 헌신의 눈물(tears of commitment)을 흘립니다. 그는 불성실한 죄인에게도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헌신의 눈물을 흘립니다.

성경 예레미야 50장 4-5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며 울 것(박윤선)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것(4절)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영영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과연 영영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코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눈물과 기도의 눈물만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헌신의 눈물도 흘릴 것입니다. 그 헌신의 눈물이란 바로 그가 언약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란 특히 십계명 중에 첫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입니다(출20:3) 다시 말하면,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우상숭배를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는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돌아다니며 우상을 섬기는데 도취하지 않습니다(렘50:6, 박윤선). 그리고 그는 불신자들에게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7절). 그러면서도 그는 스스로 “우리는 무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7절). 그러므로 영영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안식을 누리십니다(6절).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는(죽은) 분들을 생각할 때 충분히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우리들의 슬픔은 소망이 있는 슬픔입니다. 그 소망이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소망입니다(살전 4:13-14). 이렇게 주님은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슬픔조차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돌이켜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누릴 때에 우리는 울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가되 우리는 감사의 눈물과 기도의 눈물과 헌신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에 감사의 눈물과 기도의 눈물을 흘리면서 언약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헌신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으므로 불신자들의 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을 들어서 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감사의 눈물과 기도의 눈물과 헌신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막힘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을 때에도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았던 것처럼(행16:6, 7)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셨지만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던 것처럼(10절)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의 문을 닫으실 때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열어주시는 문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언젠가 저희 교회 교육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막으시는 하나님에 관한 깨달음과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원리를 제 삶과 또한 교회 가운데 적용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먼저 막으시는 하나님에 관한 깨달음이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는데(삼하7:13) 그 이유는 다윗이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대상22:8).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이 (간절히) 있었던 다윗을 막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건축 문을 막으시므로 그에게 열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열어주신 것은 바로 소망의 문이었습니다(호2:15).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던 다윗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막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다윗을 향하신 자신의 소원을 이루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란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해 주시는 것(삼하7:5-7)과 또한 다윗에게 크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8-16절).

하나님께서 다윗이 원하는 성전건축을 막으시므로 다윗의 마음에 열어주셨던 것은 바로 크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셨으며(6절) 또한 그는 어느 지파에게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7절). 그 이유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솔로몬)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이기 때문입니다(대하6:18).

하나님께서 다윗이 원하는 성전건축을 막으시므로 다윗의 마음에 열어주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었습니다. 그 크신 축복 중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있어 그의 모든 대적을 그의 앞에서 멸하시고(삼하7:9) 그들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시겠다고(11절)는 약속의 말씀과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9절)도 있지만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하는 다윗을 막으셨던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었습니다(11절). 다윗이 죽은 후 그의 몸에서 날 자식(솔로몬)을 그의 뒤에 세워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12절). 또한 그 자식(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13절).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솔로몬)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14절). 그리고 솔로몬이 죄를 범하면 사랑으로 징계하시겠지만(14절) 사울처럼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15절). 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더 큰 의미는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케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은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막으심 뒤에 더 큰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막으심에 다윗이 불평, 원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고자 하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지 우리의 제한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길을 막으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고 그의 뜻을 찾고자 기도하며 기다리곤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자 소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 성령님께서 막으셨지만 마게도냐로 가는 문을 열어주시므로 결국 유럽을 복음화시키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셨음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입니다(행16장). 하나님은 길을 막으실 때 또 다른 준비해 놓으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분명히 열어주실 문이 있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는 큰 뜻은 무엇입니까?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요한복음 6장1-15절 말씀(오병이어의 역사)을 성취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하는데 왜 아직도 성취해 주시지 않으시고 막으신다는 느낌을 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심을 깨닫게 해주시므로 말미암아 저의 지극히 작음을 들춰내시고 인정케 만들고 계십니다. 또한 그의 크신 축복들이 분명히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망하여 확신케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승리장로교회에게 적용해 볼 때 왜 하나님께서는 승리장로교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고 계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 지역에 사는 히스패닉(라티노) 영혼들을 복음화 하시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행11:19ff).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승리장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길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승리장로교회가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므로 예수님의 참된 사랑의 공동체로서 지역 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16:18)] 우리 승리장로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세우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에게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승리장로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사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18절).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승리장로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우실 것입니다. 세우시되 기원하는 것은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선교사역은 어떠한 선교 사역입니까? 저는 사도행전 16장 6-10절 말씀 중심으로 두 가지로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선교사역은 성령님께서 막으실 때에 중단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6-7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 실라와 함께 제2차 선교 여행 중 루스드라 라는 지역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예수님의 제자 디모데를 만나(1-3절)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이방인 형제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므로(4절) 여러 교회가 믿음이라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5절). 그런 후 오늘 본문 6절에 와서는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선교사역을 감당하고자 아시아로 향하려고 하였지만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돌아다니다가(6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7절). 그러나 또 다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7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아나 비두니아에서 전하고자 애썼는데 성령님께서 전하게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 분명히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성령님께서 막으셨는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막으셨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우선순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막은 것이 아니라 아시아나 비두니아에서 전하는 것보다 먼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다른 곳이란 바로 마게도냐를 가리킵니다(10절).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실 리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지역의 우선순위가 그의 섭리 가운데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때에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분별하지 못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는 좋은 의도(motive)도 있지만 무엇이 먼저 있고 무엇이 그 다음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찾고자 고민하여 기도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향하신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아시아나 비두니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바로 마게도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몰랐던 바울과 그의 일행은 선교지를 찾아 열심히 나섰지만 아시아나 비두니아 모두 성령님께서 막으셨던 (허락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성령님께서 막으셨을 때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하지 않고 그 성령님의 막으심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지케 하실 때 우리는 브레이크(Break)를 잡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멈추라”하면 “예”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웬지 우리는 마치 자동차의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너무 깊게 밟아 속도를 너무 빨리 내느라 브레이크 페달을 갑자기 잘 밟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라 성령님께서 ‘멈추라’고 막을 실 때에 우리의 영적 브레이크 페달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멈춰야 할 때는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앞을 보고 달리기에만 바빠서 멈춰야 할 때를 분별 못하고 무심코 달려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님이 달리라 하면 달리지만 성령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영적 민감함(spiritual sensitivity)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민감해 있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흐지부지하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흑백이 분명하게(clearly) 하시며,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님의 막으심(허락지 않으심)을 깨달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인드(mind)를 날카롭게(sharpened)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선교사역은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순종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성령님께서 바울과 그의 일행으로 하여금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므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관문인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8절). 거기서 거하고 있었을 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는데 그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9절). 그 때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환상을 본 후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10절).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가고자 애썼던 문을 막으셨을 때에는 꼭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가고자 애썼던 문은 바로 아시아(Asia)와 비두니아였지만 성령님께서 그 문을 막으셨지만 결국 환상을 통해서 그들을 마게도냐, 즉 유럽(Europe)로 가는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주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는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지금도 성령님께서 환상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박윤선 박사님에 의하면 환상은 보이는 형상이 그 중점으로 생각되는 계시라고 말했습니다(박윤선).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사도 바울 시대와 달리 환상을 통하여서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뜻을 알려주신다고 믿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심령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시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꿈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며 고민하는 부분은 10절에 나와 있는 “인정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NIV나 NASB 성경을 보면 “conclud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들을 부르신 줄을 “인정” 또는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Word Pictures in the New Testaments라는 주석에 의하면 ‘인정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함께 가도록 만들다’, ‘하나로 되다’, ‘결합시키다’, ‘이것저것에 동의하므로 결론을 내리다’입니다(to make go together, to coalesce or knit together, to make this and that agree and so to conclude).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바울의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성(reason)을 사용하여 논한 결과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함께 동의하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칼빈의 말을 빌리자면 바울과 그의 일행은 환상을 통하여 주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의 뜻을 계시해 주셨음에 충분히

설득을 당했다(being fully persuaded)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롬12:2). 그러므로 영적 민감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문과 열어주시는 문을 분간해야 합니다. 그는 분명히 한 쪽 문을 닫으시며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은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총만해져가는 이성을 사용하여 함께 동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평강과 믿음과 담대함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이끌림을 받아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문과 열어주시는 문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막으신다는 결론이 내려질 때에 성령님께서 그럼 다른 문을 열어주실 것은 믿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 애써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때에 성령님께서 그의 방법으로 새로운 선교 사역지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때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막으시는 하나님의 크심과 큰 축복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감힘은 기회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사랑하는 분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분들의 육신의 고통을 눈으로 직접 볼 때에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분들 옆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하면서도 저는 특히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마음이 뭉클하면서 나오는 눈물을 참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그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큰 은혜의 힘으로 장례 예배를 인도하지만 주일 아침 교회당으로 와서 그 분들의 빈자리를 보면 또 다시 그분들의 추억으로 인하여 그리움 속에 잠기곤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많이, 크게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작년 말에 고 안덕일 전도사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떠나 보내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크게, 더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신 작은 깨달음은 마음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4장 3-4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에게 하신 말씀으로써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갇힌바 되었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추격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군대로 통해서 영광을 얻으므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은 변하여(5절) 병거를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지만(6-8절)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사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셨습니다(17-18절).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다 가운데 뒤집어엎으시되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흥해 바다에 들어간 전차와 마병과 바로의 모든 군대를 덮어 버렸으므로 그들 가운데 한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게 하시므로(27-28절, 현대인의 성경) “그 큰 능력을” 나타내시므로(31절)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갇힌바 되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리 동서남북을 보아도 문제의 해결점이 안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갇힌바 된 상황에서 스스로 빠져 나오려고 노력하지만 그리하면 할수록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우리는 더욱더 깊은 늪에 빠져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함과 무기력감을 뼈저리게 느끼는 절망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간구하게 됩니다(참고: 욥2:4).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확성기(megaphone)로 크게 말씀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사(롬8:28)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케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돌려 인도하심에는(출13:18)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갇힌바 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갇힌바 되게 하시사 우리를 막으시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을 때에도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았던 것처럼(행16:6, 7)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셨지만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던 것처럼(10절)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의 문을 닫으실 때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열어주시는 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이 닫히고 열리는 경우도 많지만 종종 우리의 삶에는 동서남북으로 갇힌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갇힌바 된 사람을 생각할 때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요셉이 생각났습니다(창:39:20).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서(6절) 자기 주인인 애굽(이집트) 왕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인 보디발(1절)의 아내가 눈짓하다가(7절) “날마다”(10절) 동침하기를 청하였을 때(7, 10절)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9절)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10절). 그런데 하루는 요셉이 일을 하러 자기 주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때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자기주인의 아내만 있었습니다(11절).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고 했을 때 요셉은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습니다(12, 13절).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은 집 사람들을 불러서 요셉이 자리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14절) 자기 남편인 보디발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도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려고 자기 방으로 들어왔다가 자기가 소리를 지르자 요셉이 옷을 자기에게 버려두고 달아났다고 거짓을 하였습니다(16-18절). 그 결과 요셉은 왕의 죄수가 가두는 옥에 갇혔지만(20절)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21절). 간수장은 옥의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옥 안의 제반 업무를 요셉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였습니다(22절). 그리고 그는 요셉이 책임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23절, 현대인의 성경). 형통케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옥에 갇힌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므로(40장) 바로 왕의 꿈까지 해석하여 옥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셨습니다(41장).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옥에 갇힌바 된 노예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형통케 하시되(39:2, 3, 21, 23) 그를 높이사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41:41).

저는 갇힌 바 된 사람을 생각할 때 또 생각나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은 또한 요셉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가둔바 되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행16:23-25).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을까요? 특히 찬송이란 만일 예수전도단의 홍성건 목사님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아직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바울과 실라가 갇힌바 된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씀을 생각할 때 찬양의 능력(power of praise)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의 능력을 믿습니다. 결국 그들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때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26절)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결하려다가(27절) 바울을 통하여 주 예수님을 믿어 그와 그의 온 가족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 크게 기뻐했습니다(31-34절). 결과적으로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찬양하던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서 건져내신 게 아니라 그들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정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바울과 실라나 요셉이나 출애굽 당시 홍해 바다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간적으로 보고 생각할 때 갇힌바 되었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건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을 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갇힌바 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인자를 더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더 크게, 더 깊게 경험하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힘들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게 하시다가 마침내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나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 경배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나눔

탈진은 기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스트레스가 한계선을 초과할 때 자신에 대한 환멸, 자기비하, 냉소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알리는 위험 신호를 한 일곱 가지로 정리한 글이 있어 여기에 옮깁니다(인터넷): (1)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한다, (2) 너무 많은 일을 시도해 정작 중요한 일을 처리할 시간이 부족하다, (3)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가혹한 압박을 가한다, (4) 항상 자신이 뒤쳐져 있고 최고가 되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을 느낀다, (5) 습관적으로 오래 앉아 일한다, (6) 일을 일찍 마치고 귀가하면 죄책감을 느낀다, 그리고 (7) 집으로 걱정거리를 가지고 간다 등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알리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일을 하면 결국은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탈진이란 무엇입니까? 탈진이란 문자 그대로 힘과 기운이 완전히 빠져 정서, 신체,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피로와 무력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탈진상태에 이르면 사역에 대한 의욕을 잃고 신체의 질병과 부부간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러한 탈진상태에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성경 열왕기상 19장1-14절 말씀을 보면 탈진의 주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갈멜산에서의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의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18장)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니(19:2) 엘리야는 두려워 일어나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4절). 우리는 엘리야에게서 더 이상 갈멜산에서의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탈진 현상에 대하여 한 4가지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 탈진 현상은 두려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위협의 메시지를 받고 두려워했습니다(2-3절).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은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담대하게 아합에게 보이려고 나아갔던 엘리야(18:2)가 열왕기상 19장에 와서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던 것입니다(19:3). 엘리야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습니다.

엘리야의 이 첫째 탈진 현상은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 후에 나타났습니다. 웬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은혜 받은 후에 그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에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은혜 받은 후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처럼 사람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껴 도망하는 회피 또는 도피 현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탈진 현상은 절망입니다.

엘리야는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3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템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4절). 얼마나 낙망하고 절망하였기에 죽기를 간구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고 기도하였는데 이 말씀은 “It is enough”(NASB), 즉, ‘이젠 되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선지자로서의 사역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치고 낙심하여 쓰러져 하나님께 이젠 됐으니 자기 생명을 취해 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사역자에게 있어 낙망이나 절망은 참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웬지 피할 수 없다는 생각 또한 듭니다. 어떠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사역 속에서 낙망과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직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웬지 목회 가운데 한번은 엘리야처럼 절망을 경험하지 않을까 예상하는 것입니다.

셋째 탈진 현상은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로템나무 아래 누워 자고 있었을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깨워서 “먹으라”고 권면하면서(5절)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병을 주었습니다(6절).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고(6절) 또 다시 사자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고 권면한 것을 보면(7절) 엘리야는 육신적으로도 많이 지쳐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먹고 마신 후 “그 식물의 힘”(the strength of that food)을 얻었습니다(8절).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육신적으로 지쳐 쓰러져 결국은 이런 저런 병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할 수 없이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쉴 수밖에 없는 이

목회자분들을 생각하면 엘리야가 육신적으로 지쳐 연약한 가운데서 탈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탈진 현상은 극심한 외로움입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공급해 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사십 주 사십 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8절) 굴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10, 14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오직 자기만 남았다고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웬지 그는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굴 안에서 혼자 있는 엘리야를 생각해 볼 때에 그는 극심한 외로움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탈진 현상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4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잠잠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사역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마르다처럼 일하기에 분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좀 복잡한 생활환경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 홀로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멈추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육체적 안식이 필요합니다(5-7절).

탈진 현상의 하나인 육신의 연약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쉼 때는 쉼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르다 같은 일 지향적인 사역자들은 쉼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될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일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잠잠히 앉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야할 때 잘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서 육체적으로 지쳐 쓰러지고 병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엘리야처럼 좀 광야로 들어가 잠을 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먹어야 합니다. 청지기로서 우리는 우리 건강관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실하게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든 몸을 주님께 받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의 장막은 점점 더 연약해 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건강관리를 잘하여서 주님이 주신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분히 살어드리기 위해선 건강관리 철저히 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12절).

엘리아 선지자는 육체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습니다(찬송가511장).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잠24:16).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탈진하여 쓰러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일어나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오독이와 같습니다. 쓰러졌다가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사 우뚝 서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떤 일로 두려움과 낙망 속에서 외로워하며 육신적으로 지쳐 쓰러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육체적 안신과 더불어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므로 말미암아 다시금 재충전 받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데 전심전력하십시오. 승리!

광야의 영성을 추구하고 싶은,

제임스 목사 나눔

고난은 기회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도 심히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뉴스를 인터넷 CNN 뉴스를 통해서 접해 듣게 되었습니다. 34살 난 아버지가 자기의 8살 난 딸과 9살 난 딸의 친구 여자 아이를 칼로 각각 20번과 11번 찔러서 죽인 사건이 시카고에 좀 떨어진 소도시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나 잔인한 것은 이 아버지란 자가 딸의 양 눈까지도 칼로 찔렀다는 뉴스를 접하고 이것은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악 중의 악이 아닌가 생각하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인간인가?', '과연 아빠의 자격이 있는가?'

자동차 운전하려면 운전 면허증을 따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되는 일에는 자격증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공부하는 것도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자기의 딸의 머리를 때려 거실에서 죽도록 이틀을 놓아두었다는 엄마, 결국 예쁜 딸아이의 목까지 잘려서 버려진 사건을 뉴스로 접한 기억이 오늘 이 밤에 또 납니다. 과연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의문을 던져 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면 우리 남자들은 남편과 아버지로서 아내(엡5:29)와 자녀들(6:4)을 "양육"할 책임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하다'란 헬라어 의미는 'narrow', 즉 '좁다'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즉, 우리 남편 또는 아버지들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즉 십자가의 길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아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 길을 고의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고난의 아픔과 고통 외에 고난의 유익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난의 유익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기에 믿음으로 고난의 통로를 인내하면서 견디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시편 119편 65-72절 말씀 중심으로 "고난의 유익"이란 제목 아래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고난의 유익은 나의 그릇 행함을 깨우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6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우리는 고난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릇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가 많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그릇행할 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때에 우리는 영적 장님과 귀머거리가 되어서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우왕좌왕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마치 잘못된 길로 가는 양을 양치기 소년이 막대기로 쳐서 바른 길로 걷게 하듯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고난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시사 비뚤어가는 우리를 바른 길로 견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사53:6). 우리는 미련한 양이래서 제 길 가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좁은 길이 아닌 세상의 넓은 길 말입니다. 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릇행함을 깨우쳐 줍니다.

마지막 둘째로, 고난의 유익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6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6 가지로 어떻게 고난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계명을 믿게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6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릇 행함을 깨우쳐 주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U-turn을 만들게 하므로 주님의 계명만이 참된 길임을 믿게 합니다. 우리는 매일 둘 중의 하나의 길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좁은 길과 세상의 넓은 길.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좇던지 아니면 사탄의 말 또는 세상의 말을 좇던지 둘 중의 하나의 선택을 매일 순간 순간하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주님의 길, 주님의 계명을 믿고 그 계명의 길을 걷게 합니다.

(2) 고난은 우리에게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 시편 119편 6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명철 즉 선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무지한 가운데서 그릇된 길을 걷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분별력의 상실이란 확신(conviction)이 아닌 혼동(confusion)을 가지고 옵니다. 결국에 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계명의 길을 일관성(consistent)있게 걷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영적 분별력의 상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길, 혼동의 길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의 무지함과 선한 분별력의 상실의 늪에서 건져주십니다. 결국에 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영적 분별력과 주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십니다.

(3)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6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 고난을 통하여 맛보는 주님의 선하심(34:8) 중 우리에게 제일 큰 유익은 고난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롬8:28)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제일 힘들고 괴롭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극심한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밝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극심한 고난 중에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자의 거짓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시편 119편 6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교만한 자의 거짓이 우리 귀에 너무나 분명하게 잘 들려서 그 교만한 자의 거짓된 길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교만한 자들의 거짓, 너무나 진리같이 생각되어 그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릇된 길을 선택하는 혼동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지금 그 거짓된 길을 분주하게 달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세상의 교만한 자들이 보여주는 거짓된 성공과 명예와 물질 만능주의의 길, 그러나 고난을 당한 후에 우리는 그 모든 교만한 자의 거짓된 길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참된 길, 주님의 길을 밝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길은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이 얼마나 세상의 길의 결국과 다릅니까? 여러분은 영적 매력을 느끼십니까? 우리의 가는 좁은 길의 클라이맥스(climax)가 죽음이라는 것에 우리는 영적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력을 느끼십니까? 이러한 진리는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의 마음에 이러한 진리를 사수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이 진리를 심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심는 과정에서 고난을 통하여 교만한 자의 거짓을 미워하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5) 고난은 마음에 살찐 지방을 제거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7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저희 마음은 살찐 지방 같으나" 요즘 미국에서는 비만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빼겠다고 다이어트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찐 지방"(fat)을 제거하고자 수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살찐 지방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살찐 지방을 제거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육신의 "살찐 지방"이 붙어있으면 얼마나 이런 저런 불편함과 더불어 결국 이런 저런 성인병까지 걸립니까? 그러나 마음의 살찐 지방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최악 된 결과를 낳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최악 된 결과를 가볍게 여기며 누리는 더 큰 죄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란 이러한 영적 상태에서 우리 마음에 살찐 지방을 제거하는 데 필수적인 최고의 약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마음에 살찐 지방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6)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해 줍니다.

성경 시편 119편 72절을 보십시오: "주의 입의 법이 내게 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 니이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 고난을 통하여 "사람이 떡 으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 게 되었습니다(신 8:3).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걸 어가신 좁은 길, 즉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많고 다양한 고난들을 접하면서 결국 그 고난 중에 오직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수 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가치가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 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우리 인간의 이 땅에서의 생 명 연수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재 물보다 이러한 말씀의 소중함과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회적으로 어지러운 이 세상, 점점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세상, 우리 예수님 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의 좁은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과거나 현재보다 더 큰 고난 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고난의 유익들을 고난당하는 그 때 그 때마다 경 험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올지라도 오히려 고 난의 유익을 누릴 줄 아는 고난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기자가 시편 119 편 6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심을 경험하며 그의 선 하심을 맛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고난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헨리 나우웬은 그의 책 “춤추시는 하나님”에서 한 네 가지로 반응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가리켜 하나님과 춤을 추는 스텝 네 가지라 말합니다. 하나님과 춤을 추는 첫 번째 스텝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합니다. 울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아뢰야 합니다. 그러나 웬지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인정하기보다 부인(deny)하려고 하던지 무시(ignore)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억누르려고(suppress)하려고 합니다. 만일 그리한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을 당할 때마나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할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춤을 추기 위한 두 번째 스텝은 고통과 아픔을 유발하는 원인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마비시켜 부정과 수치와 죄책이라는 옥에 가둔 은밀한 상실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연 고통과 아픔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그 원인을 직시하던지 안하던지 할 텐데 많은 때에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통과 슬픔의 원인을 직시하지 못할 뿐더러 설상 우리가 그 원인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본능은 그 원인을 직시하기보다 피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피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원인을 직시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어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춤의 세 번째 스텝은 고통과 아픔, 상실과 상처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너무나 막대한 에너지를 부정하는 데 쏟아 부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가운데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상실과 상처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고통과 아픔의 터널에 들어가야 합니다. 비록 어둡고 무서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터널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터널에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춤의 마지막 네 번째 스텝은 고통과 아픔, 상실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아픔, 상실과 상처의 터널에 들어가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 상실과 상처를 느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고통과 상처에 치유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움을 받아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요나 2장 1절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가 겪은 고통은 한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의 고난은 큰 물고기 뱃 속이었습니다(1절). 다시 말하면, 요나의 첫 번째 고난은 스올의 뱃속 이었습니다(2절). 어두컴컴한 동굴처럼 바다 깊은 곳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는 동서남북을 다 돌아보아도 아무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갇힌바 된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갇힌바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물론 이것은 바로 왕의 생각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지만). 찬송가 539장 3절 가사처럼 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모두 끊어진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 상태에 놓였을 때에야 우리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둘째로, 요나의 고난은 주님의 파도였습니다(3절). 여기 ‘파도’란 실상 깨뜨리는 자들(breakers)이라는 뜻으로써 곧 자신을 깨뜨려 부수는 파도를 이릅니다(박윤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강박한 마음을 깨뜨려 부서트리시고 계셨습니다.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사 요나가 타고 있었던 배만 깨뜨리시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1:4)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강박한 마음을 깨뜨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던 요나의 강박한 마음을 주님께서 깨뜨리시므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케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셋째로, 요나의 고난은 주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4절) “...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요나가 이러한 느낌이 들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1:3). 다시 말하면,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하려고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도 자기에게 멀리 떠나 자기를 버리셨다는 느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듬니까?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멀리 도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2편 1편에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여 내 하나님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신음하며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응답이 없고 아무 도우심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림받았다는 느낌은 육신적으로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주님의 파도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난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아버지께 징계를 받을 때 어두운 방안에 갇혀 있는 것과 아버님으로부터 몽둥이로 엉덩이나 종아리를 맞는 것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더 괴로운 것처럼 어떠한 징계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제일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막15:34)란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는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언하며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요나의 고난은 그의 영혼이 그 속에서 피곤해 갔다는 것입니다[(욘2:7)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 여기서 ‘피곤하다’란 단어의 뜻은 ‘쇠퇴해가다’입니다. 이

단어는 요나는 극도의 낙심 지경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요나에게 임한 고난의 지경은 전적 무능력함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혹은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러한 상황이 삼일이나 되었다는 것은 극도의 낙심 지경에 이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적 무기력함과 전적 무능력함을 경험하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하여금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라고 고백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큰 유익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접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특히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대풍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춤을 추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편 119편 71편).

춤추시는 하나님과 스텝을 맞추는 것을 배우고 있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두려움은 기회입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 중에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신지요? 만일 계시다면 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걱정, 근심, 불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려움”하면 생각나는 성경구절은 제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이사야 41장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 .”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온전한 사랑이 결핍돼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편지”(제 64호)를 보면 우리 안에 잠재된 무의식적인 두려움은 크게 네 가지로 삶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두려움은 당신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고 주저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둘째로, 두려움은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거절당하기를 두려워해서 가면을 쓰고 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가장하고 실제 감정을 부정합니다. 결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로, 두려움은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방해합니다. 행복과 두려움은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두려움은 우리의 성공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일어날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두려워하는 일이 발생할 것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실패를 준비합니다.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게 합니다”(인터넛).

과연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 시편 27편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한 세 가지로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도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안연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그는 오히려 담대하였던 것입니다.

성경 시편 27편 3절을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현대인의 성경) "강한 군대가 나를 포위하고 진격해 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이 일어나 적군이 나를 칠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오히려 안연(담대) 할 수가 있었습니까?

(1)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두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안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잠잠히 바라보았습니다(1절).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서도 안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빛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참으로 어두웠었습니다. 시편 27편 2-3절을 보면 “나의 대적, 나의 원수 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다윗에게로 왔고 또한 “군대”가 다윗을 대적하여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5절). 이러한 어두운 상황에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안연(담대)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두려운 상황에서 안연(담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두려운 생활을 접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걱정도 되고 근심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 안에서 자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파도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면 우리는 인생의 최악 된 파도와 물결이 몰아칠 때에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운데서 태연한 척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솔직히 인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빛”(light)은 어두움을 자동적으로 쫓아버리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두움”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의 대적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그의 대적들, 특히 전쟁 상황에서의 그의 대적 군대들을 가리켜 “어두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어두움을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에 다 쫓아내실 것을 다윗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환하게 발하는 것처럼 두려운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두움을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구원”이신 하나님, “승리” 혹은 “구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생명의 능력”(the defense of my life)이신 하나님, 곧 다윗의 “피난처”이시며 다윗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즉, 다윗은 어떠한 군대 정황(배경)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상황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더욱더 환하게 발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두려운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케 하실 수 있는 그의 능력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 전 인격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안연(담대)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은 과거의 구원의 은총을 뒤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두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안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승리(구원)의 체험을 되새겨야 합니다.

성경 시편 27편 2절을 보십시오: “나의 대적, 나의 원수 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은 그가 당면한 어두운 상황에서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대적들을 실족케하여 넘어뜨리신 일을 기억하므로 두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안연(담대)하였습니다. 성경은 “나의 대적, 나의 원수 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절). 현재 어두운 상황 속에서 캄캄하게 보이기만 하는 미래를 생각하기에 앞서 과거의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총들을 생각하므로 말미암아 현재의 당면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 빛 되신 주님께 대한 구원/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3) 세 번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두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안연(담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윗은 미래에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서 그의 대적 군대가 진 치며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3절). 그 이유는 그가 빛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그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두려운 상황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저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인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16:18)란 말씀 또한 신실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어떠한 두려운 상황을 접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담대하게 견고히 서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27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 구했습니다.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은 그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야 합니까?

(1)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 볼 때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자기 일생 모든 날에 묵상했습니다. 은혜 총만한 하나님 계시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자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체험합니다(박윤선).

(2)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27편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했던 이유(4절)는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귀어, 그 모든 위험에서 구원 받는 방도이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제 첫째 아기 주영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면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을 때 제가 자주 듣고 묵상했던 미국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그 영어 복음성가는 바로 “Under the Shadow of Your Wings” (주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주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나의 하나님 주를 기다리네 이곳 주의 처소에서 주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니 주 알기 위해 나를 드립니다 주 사랑으로 덮으소서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소서 주 알기 원합니다.” 저는 이 노래를 밤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주영이와 함께 있다가 차를 타고 병원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창공을 바라보며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따라 부르면서 저는 제 아내와 제가 아이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그늘 아래, 거룩한 비밀스러운 곳에 우리 주영이를 품어주시고 숨겨주시길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따라 불렀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에 맡기는 기원의 찬양이었습니다.

(3)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원수를 물리치시므로 자기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을 소망하였기에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한 가지 칭하였습니다.

성경 시편 27편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 박윤선 박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많은 원수 앞에서 몰락되지 않고 도리어 소망 중에 태연자약하게 살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소망 없이는 어두운 환경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개를 들고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죄악 된 물결의 파도가 더 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543장 2절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괴롭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성경 시편 27편 6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그의 보호하심과 승리케 하실 것을 소망했습니다(5절).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장래의 소원 성취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서원했습니다(6절, 박윤선). 이 행동은 승리자로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입니다(박윤선). 어떻게 이 행동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다윗은 자신의 대적과 자신의 원수 된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어두운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승리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겠다고 서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과거에 자기로 하여금 승리케(구원)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가 당면한 원수들이 대적하는 어두운 상황에서와 또한 앞으로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능히 건시지고 승리케 하실 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상황은 변치 않았는데 다윗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두려움 되신 확신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그 두려운 상황에 지배를 받기보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 다윗은 환경에 지배를 받기보다 그 환경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자기가 당면한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오히려 믿음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자는 찬양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다윗처럼 두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사41:10). 어떠한 두려운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을지라도 또한 앞으로 처하게 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오히려 안연(담대)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결국에 가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로 세움 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담대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예배자로 세움 받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괴로움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괴로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보라”라는 찬양이 생각납니다: (1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2절) “힘이 없고 네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후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모든 영려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러나 과연 우리는 괴로울 때 주님을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아니면 우리는 괴로울 때 괴로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과 실망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지요?

성경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8절에도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어떻게 하셨는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3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괴로울 때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7절을 보십시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침묵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두 번이나 반복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7절).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입을 열어 변명하지 않고 침묵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 입을 열어 변호합니다.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누명을 쓰게 되면 법정에 서서 변호사를 통하여 우리를 변호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7절). 헨리 나우웬은 그의 책 “기도의 삶”에서 이러한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저주의 말이나 내가 쓸모없다든지 모자란다든지 하는 말을 듣기가 너무 두려워, 다시 입을 열어 계속 말하고 싶은 유혹에 금방 넘어간다. 두려움을 이겨보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곤욕을 당하므로 괴로울 때에 두려움 속에서 또한 억울함 속에서 입을 열어 계속 말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입을 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은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그 대답을 이사야 30장 15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어늘 ….” 괴로울 때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잠잠히 의지(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헨리 나우웬이 그의 책 “기도의 삶”에서 한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침묵으로 이끌고 침묵은 말씀으로 이끈다. 말씀은 침묵 안에서 태어나고 침묵은 말씀에 대한 가장 깊은 반응이다.” “침묵은 말씀에 대한 가장 깊은 반응”이라는 말이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잠잠히 신뢰하는 가운데 침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음성들이 들릴 것이고 또한 많은 말을 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괴로울 때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들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헨리 나우웬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침묵 속에 들어가 세상의 시끄럽고 귀찮은 잡다한 음성을 따돌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작고 친밀한 음성을 가려듣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과감히 고독을 끌어안고 침묵을 벗 삼는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알게 된다.” 우리는 과감히 고독을 끌어안고 침묵을 벗 삼아야 합니다.

둘째로, 괴로울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8절을 보십시오: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이미 묵상한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4절)고 생각(착각)하였지만 오늘 본문 8절에 와서는 바른 생각이 나옵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마땅히 형벌 받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곤욕과 심문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죄한 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곤욕과 심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므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침묵 가운데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성경적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괴로울 때 바른 생각, 즉 성경적 생각을 하지 못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침묵 속에서 말씀에 입각하여 성경적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괴로울 때 침묵하지 못하고 불평이나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우리는 논리적 생각 (이성)이 앞서기보다 감정이 앞서서 분노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 감정에 이끌려 생각의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괴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 침묵 가운데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괴로울 때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이사야 53장9절 말씀 을 보십시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궤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고도다.” 우리는 괴로울 때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으며 또한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괴로울 때 범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괴로울 때 그분의 입에 궤사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괴로울 때에 입술로 죄를 범치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강포도 행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괴로울 때 언행으로 죄를 범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죄를 범치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고 그 묘실이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입술로나 행동로나 어느 면으로나 하나님께 죄를 범치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가능한 예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욥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행으로 죄를 범치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가능했기에 우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욥기 1장22절과 2장1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욥1:22),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학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2:10). 오히려 욥은 괴로울 때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1:20).

그러므로 우리도 괴로울 때 입술로나 행동로나 하나님께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괴로울 때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괴로운 환경에서 감정에 이끌림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생각으로 괴로운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괴로운 환경을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승리!

괴로울 때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기원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원망의 소리는 기회입니다.

직장이던 가정이던 교회이던 어느 조직에서나 우리는 원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이유는 직장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만족하는 이유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 안에 못마땅한 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못마땅한 일들 중 하나는 어쩌면 불공평한 처사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듣는 원망의 소리를 불공평한 처사로 인한 불만족에서 나오는 원망의 소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짐작하면서도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편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할 바를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어떠한 기회입니까?

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초대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사도들이 핍박과 능욕 가운데서도(5:41)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므로(42절) 제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6:1). 그리고 제자들이 많아졌을 때에 초대 교회 안에서는 원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의 소리는 헬라 파 유대인들이(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에서 출생한 유대인들)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 파 유대인들(아람어를 사용하는 팔레스틴의 유대인들)에게 낸 소리였습니다(1절). 이러한 원망의 소리를 우리 가운데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불공평한 일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을 하는데 구제헌금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가운데 공평하게 나누어 지지(분배되지) 않을 때 성도님들 가운데서 충분히 원망의 소리가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그 원망의 소리를 경허히 들어야 합니다. 듣데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첫째로, 성도님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 사명으로 돌아가 그 사명을 실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6장 2절을 보면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열 두 사도들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러분은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니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었으면 그 열 두 사도들은 구제 사역에 있어서 불공평한 처사를 확인한 후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고 있었으면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속히 내려야 하지 않았나요? 이것이 주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반응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 문제를 알게 되었다면 그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아닌가요? 그래야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을 막고 교회의 화목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 두 사도들은 그리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구제 사업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모든 제자들에게 공포하였습니다(2절). 왜 그들은 그리 공포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사도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구제 사업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그 신령한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지장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박운선). 그래서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사 주신 본래 사명으로 돌아가 그 사명을 실행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까?

요즘 우리 목사님들, 너무나 바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분주합니다. 분주한 나머지 지금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않고 있습니다(요21:15, 17). 그 원인은 지금 우리는 사명에 이끌림을 받고 있기보다 상황에 이끌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외에 부수적인 일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우리 각자의 타당하게 생각되는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타당하게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성도님들이 각자 받은 은사와 직분대로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조직 안에 담임 목사나 부교역자 외에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및 직분자들의 역할이 각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모르고(또는 알면서도) 자기의 맡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안할) 때에 그 부담은 거의 다 목사님들에게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것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의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잘못된 의식이란 자기의 책임을 목사님들에게 떠 맡겨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저 모든 것을 부모님께 떠맡기듯이 요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영적 어린 아이들로 인하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충분한 시간을 헌신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우리 목사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초점을 두지 않고 구제 사역이나 다른 교회 사역에 초점을 맞춰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원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성령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우선순위를 겸손히 받아들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사역에 우선순위를 줘야 합니다.

둘째로, 성도님들의 원망의 소리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 주신 사역자들을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6장 3-4절을 보면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열 두 사도들은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총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초대 교회 열 두 사도들은 온 교회를 소집하여 그들에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구제 사업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함을 공포한 후에 그 구제 사업 일을 대신 할 성령과 지혜가 총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 초대 교회 성도들은 그 열 두 사도들의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총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였습니다(5절).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을 때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6절). 그리고 사도들은 그 일곱 사람들에게 구제사역을 맡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일곱 사람들에게 구제 사역을 위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였습니다(4절).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구제함에 있어서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원망의 소리를 듣고 있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들로 하여금 초대 교회 사역자들 일곱을 세우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역할 분담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 교회 열 두 사도들은 원망의 소리를 사역자들을 세우는 기회를 삼은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총만하여 칭찬 듣는 일곱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하던 구제 사역을 위임을 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위임할 줄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혼자서 교회 일들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서 함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 평신도 사역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하도록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일 욕심 때문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권위주의 때문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그 평신도 사역자들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요?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자신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들은 주님께서 함께 동역하라고 우리에게 붙여 주신 주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세워 그들에게

주님의 일을 위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역자들을 발굴하여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초대 교회 안에서 들리는 원망의 소리로 인하여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열 두 사도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사 주신 본래 사명으로 돌아가 그 사명을 실행하는 기회로 삼고 또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일곱 사람들을 택하여 세우는 기회로 삼으므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고 이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7절). 이 역사를 목상할 때 지금 21세기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도 초대 교회 열 두 사도들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어떠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돌아가 그 사명을 실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성령과 지혜와 충만하여 함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역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들리고 있는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기회로 삼아 순종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마음에 놀림은 기회입니다.

요즘 D. M.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영적 투쟁”(The Christian Warfare)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사랑하는 동역자 한분과 옴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탄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영적 싸움에 대하여 더 알아야겠다는 관심과 필요를 느꼈기에 이 책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옴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전략 중 하나는 “마귀는 어느 정도 자연까지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예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아래 옴을 치기 시작했을 때에 옴의 종들 가운데 하나가 옴에게 와서 그의 소와 나귀를 빼앗겼으며 지키는 자들은 살해당하였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옴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 하나님의 불이 - 즉 번개가 -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 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옴1:16). 여기서 번개를 일으키는 것과 번개로서 파괴시키는 일이 마귀의 영역과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마귀가 무엇보다도 관심 있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인 “정신”을 집중적으로 교활하고 무서운 권세로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마귀는 여러 가지 귀계들을 사용하여 우리의 정신을 공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포의 영으로서 우리를 억누르려고”한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말한 사도 베드로가 결국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며 주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한 이유는 “마귀가 지극한 공포의 영이 그에게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공포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존스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스 목사님은 요즘 교회에 대하여 이러한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마취를 당하고 혼미하게 되어 잠에 떨어지고 전혀 그 투쟁(영적 투쟁)을 알지 못합니다”(존스).

항상 덧과 올무를 놓고 있는 마귀, 그는 지금 교회 안에서 성공하고 있는 듯 해 보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기소침, 낙심, 패배감 그리고 완전한 절망감은 일반적으로 마귀의 활동의 결과”라고 말씀하였는데(121면) 얼마나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의기소침하며 낙심하며 패배감 속에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절망감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적인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example)가 성경 시편 61편에 나옵니다. 시편 61편 2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내 마음이 놀릴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린다”라는 말은

“자포위”(self-enveloping)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여러 가지 우고에 싸여서 기진맥진해 갈고 절망되어 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박윤선). 원수들(3절)의 핍박으로 인하여 절망되어 가고 있었던 다윗, 과연 우리가 다윗처럼 마귀의 악한 세력으로 인하여 마음이 눌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싸워 이여가 하는지 한 네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음이 눌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경 시편 61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언제나 수요기도회 때 시편 42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낙망과 절망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회로 삼자고 도전한 기억이 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과 고통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낙망하며 절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갈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웬지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갈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윗도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라고 말했습니다(2절). 왜 다윗은 “땅 끝에서부터”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너무나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느낌, 그러므로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다는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느낌 가운데서도 다윗은 자포자기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자신을 내어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나 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 하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2절). 다윗은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자기보다 높은 바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할지라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처럼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요나 선지자도 바다 깊은 속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한 것처럼(욘2:4)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러므로 내 마음이 짓눌려 있을지라도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둘째로, 마음이 눌릴 때에 우리는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61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셀라).”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면서 그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눌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 속에서도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3절).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 속에서도,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심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오늘 본문 7절 후반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짓눌려 있는 자기에게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마음이 짓눌린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를 받고 있었기에 주님께 간구하면서 그 주님께 피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꼭 붙잡고 놓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혹은 예정)하시고 또한 그 약속대로 신실히(진리로) 이행하실 줄 믿음으로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박윤선).

우리는 인생의 절망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인자)와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소망에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4절). 우리는 순간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을 바라봐야 합니다.

셋째로, 마음이 눌릴 때에 우리는 과거의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61편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권이 일시 동안 불의한 압살롬 일파에게 갔다가, 다시 다윗의 손 안에 돌아온 것을 가리킵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다윗은 과거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서 하나님께 구원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였던 것입니다(박윤선). 다윗은 원수로 인하여(3절)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에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일을 기억하기보다 과거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본능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은 마음이 눌릴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자기 행위나 공로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를 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면서 도망하여 스스로 광야로 도망간 엘리야, 천사의 어루만지심과 먹여주심으로 인하여 호렘산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9, 13절). 그 때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이 특심하오니”(10, 14절)라고 대답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자기 행위(혹은 공로)를 주장하면서 불평했습니다.

우리의 문제 중 하나는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회개한 우리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므로 우리 또한 기억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만 잊지 못하고 거듭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과거 우리의 삶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과거의 우리 삶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다윗처럼 마음이 짓눌릴 때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 때 그 때 고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믿음으로 견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눌릴 때 지난 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의 기억하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절망이 소망과 희망으로 변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마음이 눌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61편 7절을 보십시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 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길 간구했습니다(6절). 그는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길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 장수의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길 간구했습니다(7절). 상상해 보십시오. 원수들로 인하여 마음이 눌려 절망가운데 있는 다윗,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에게 피한 후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므로 소망하되 순간적인 절망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길 간구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순간적인 절망 가운데서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길 간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로서 그 나라에 영원히 거하길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나라에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 하실 때에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계22:20).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눌릴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에게 피한 후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주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시사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시61:8). 그러므로 우리 또한 다윗처럼 마음이 눌릴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피난처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주님께 피한 후 과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길 소망해야 합니다.

낙망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기회로 삼길 기원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환난은 기회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 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 하리라 …”
(찬송가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1절과 3절).

우리 성도님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 우리 신앙을 생각할 때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원수도 사랑하면서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을 전파한다는 것,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환난 중에 신앙을 지키는 것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못하는 것이지만 이 신앙을 전파한다는 것은 더욱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 신앙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복음 확산의 역사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죽도록 충성케 하시사 우리 성도님들의 순교를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산케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행 1:8).

성령행전이라고까지 불리는 사도행전,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성경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란 첫째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8:4). 그 흩어진 사람들 중 한 사람인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므로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많은 귀신들린 자들과 중풍병자들이 치유를 받으므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5-8절). 이 소식, 즉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14-15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25절).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여(26절) 그는 순종하여 가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교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27절)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므로(35절) 그가 믿음으로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38절). 그리고 그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따라 그곳을 떠나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40절).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에 와서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일어난 그 두 번째 일이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변하여 구원을 받고 사명을 받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 일입니다(행9장). 이 일을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네 만남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1-9절), (2)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와의 만남(10-19절), (3) 바나바와의 만남(26-27절), (4)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만남 (28절).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만남들을 통하여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후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일어난 세 번째 일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이달리아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2절)와 그의 집에 모인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이(24절) 베드로의 설교(36-43절)를 들었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온 것입니다(44절).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시작하여 26절까지 일어난 일로서 그 네 번째 일은 바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일입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는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통하여 초대 교회 성도님들을 흠으셨고, 그 흠어진 자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새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인 고넬료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까지 복음을 듣게 하셨으며 더 나아가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환난이란 흠어져 복음을 전하는 복음 확장의 기회요, 지도자를 세우는 기회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기회요 또한 교회를 세우는 기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사도행전 11장 19-26절을 묵상하면서 환난이란 어떠한 기회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네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환난이란 흠어져 주 예수님을 전파하는 기회요 복음 전파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1장 19-20절을 보십시오: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흠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초대 교회 성도들이 흠어지게 되었고 그 흠어진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흠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님을 전파하였습니다. 우리는 뭉쳐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죄를 범하기보다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흠어주셔서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보다 외국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할 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영역을 좀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영역을 넓혀주시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환난이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초대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되 영역을 넓혀서 안디옥까지 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는 주님의 손이 그 복음 전파자들과 함께 하시므로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삶 속에 위기란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 위기의 기회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움과 역경으로 인하여 내 두 손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오히려 주님의 오른손이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사 다시금 주님이 주신 목적에 이끌림을 받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때 참으로 삶의 위기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환난, 그 환난을 받고 있을 때에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므로 수다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임한 역경과 위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까지 볼 수 있길 기원합니다.

셋째로, 환난이란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1장 22절과 25-2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져 복음 전파와 복음 전파의 영역의 넓힘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외에도 안디옥에서 일어난 수다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의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24절)인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므로 말미암아 안디옥 지역 복음 전파자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 안디옥 복음 사역과 양육 사역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엿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로 하여금 사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오게 하여 둘이 함께 팀 사역을 일년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25-26절). 그 결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고(24절) “안디옥에서 비로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26절).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이 너무나 편해서(혹은 배가 불러서) 팀 사역을 잘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선교지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 사역과 양육 사역이 바울과 아볼로처럼(고전 3:5-9)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우리는 함께 팀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왜 교만한 것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초대 교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 교회 성도님들을 흠으사 복음 전파케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안디옥 지역 복음 전파자들과 사울과 함께 팀 사역케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환난을 통해서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들과 사역자들을 한 팀으로 만들어 주시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다가가게 하시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잘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환난이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흠어져 복음 전파와 복음 전파의 영역의 넓히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팀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역시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세우심을 엿봅니다(마16:18). 환난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이 주님의 역사를 엿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연 우리가 환난을 맞이하였다 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고 마치 선지자 학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중단하고 우리 각자 집에 빨라야겠습니까?(학 1:4, 9)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라도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부지런히, 신실하게 그리고 말씀 중심과 믿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역경과 위기와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는,

제임스 목사 나눔

죽음은 기회입니다.

저는 2008년 1월에 벌써 장례식에 두 번을 참석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사이로 말입니다. 저는 두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다시 한 번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이것을 산 자인 제가 유심하는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사랑하는 셋째 삼촌이신 김창혁 목사님께서 담당 의사에 의하면 2-3주 남았다는 소식을 접한 후 다시금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산 자로서 유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드는 마음은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도전입니다.

왜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지만 3 가지만 나눕니다.

첫째로,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인정하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저는 두 장례식 다 참석하면서 다시금 느꼈던 것은 인간은 흠으로 왔다가 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약4:14).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이 무능력해 보이고 무기력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장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하고 부자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저 같은 젊은 사람은 더욱더 장례식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 좀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노력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저는 제 힘을 좀 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제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장례식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좀 초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좀 철저히 초라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가오는 죽음이란 것을 생각하면서 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장례식을 통해서라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죽음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직시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342장(“어려운 일 당할 때”)을 종종 즐겨 부릅니다. 그 찬송가 1절 가사와 후렴은 이렇습니다: (1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후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즘 사랑하는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저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케 하고 계십니다. 저는 세월 지나갈수록 늙어가고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을 접하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더욱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둘째로,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순간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손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채우려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면 다시금 자극을 받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금이나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우리는 장례식 때 마음 먹고 결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우리 손에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쉼이 없는 분주한 생활을 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빈손으로 무덤에 들어갈 것인데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장례식을 통하여 죽음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생각하기보다 위에 것을 생각하게 되며 순간적인 것들을 추구하기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님을 깨닫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왜 그럴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죽음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상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는 전도자 솔로몬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다 지나간 후에 오직 영원한 것만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모하며 추구하던 순간적인 것들에게 더 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내려놓기를 배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으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을 다시 하게 됩니

다.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영원한 말씀대로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자 다시금 결심하게 됩니다.

저는 흠으로 왔다가 다시금 흠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이들의 시신이나 그 시신을 담은 관을 보면서 제 자신의 죽음과 장례식을 생각하곤 합니다. 과연 성경 전도서 7장 1절 말씀처럼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전도자 솔로몬 왕은 말하였는데(1절) 과연 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들의 마음에 “김지원” 또는 “제임스 김”이라는 이름이 아름답게 느껴질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과연 그들의 마음에 제 이름을 생각할 때 ‘김지원/제임스 김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다가 그가 사모하는 영원한 곳으로 갔다’고 말할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도 다가오는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삽니다(엡5:15). 그 한 예로 지혜로운 사람은 술 취하면서 방탕한 것을 좇지 않습니다(18절). 그 이유는 그는 그러한 삶이 어리석은 삶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17절). 그는 때가 악함을 알고 세월을 아깁니다(16절). 그리고 그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힘씁니다(17절). 그러기에 그는 성령 충만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19절). 또한 그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20절).

흘러가는 세월은 너무나도 빠르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는 것이 삶의 이치인가 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그 사실을 무시하고 허송세월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세월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아낄 수 있습니까? 장례식에 참석하여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도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 것처럼 분주하게 살다가도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에 참석해서는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의 종착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끝나쳐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장례식도 그리 멀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도토리 키 재기 차이일 뿐입니다.

제 나이 벌써 40이 되었습니다. 평균 삶 수명이 7-80이라면 저는 이미 반은 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언제 저를 불러 가실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왠지 저는 요즘 하루하루 살아감에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해 주셨으니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도록 힘쓰고 내일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오늘과 같은 자세로 살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나 과거에도 집착하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또한 너무나 미래를 위하여서 산답시고 이러쿵저러쿵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저는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동행하는 삶이 좋습니다. 그리할 때 오늘 밤 죽어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흘러간 세월 어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땅에서 남겨두신 세월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알 필요도 없음) 그저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김창혁 목사님, 지금 육체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계십니다. 스스로 소파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 하셨던 목사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김 목사님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라고 찬송가 40장 후렴을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힘차게 찬양하셨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의 영혼은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시는 목사님의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에 심히 부족하나마 동참하면서 저는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합니다: ‘살아도 죽은 자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는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더욱더 전도자 솔로몬 왕의 권면을 받아들여 장례식에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장례식에 가서 산 자로서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끝인 죽음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싶습니다. 심비에 적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음의 관점으로 이 남은 삶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할 때 죽어도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 후,

제임스 목사 나눔

광야는 기회의 장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종종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 우리는 진정한 약속의 땅인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천국에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우리는 가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세상 사람들을 질시할 때가 있습니다. 즉, 그들의 행동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고난을 당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고난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라는 의문 속에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눈길로 바라 볼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지, 어떻게 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이 세상에서 성공에서 풍부하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의아해 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불만족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섞여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본받아 그들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닌데도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 집인 것처럼 땅에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광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천국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성경 민수기 20장 4절을 보면 광야의 40년 생활 가운데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다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민20:1-3). 이들은 모세에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면 좋을 뻔하였도다”(3절)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짐승으로 다 죽게 하였느냐(4절)고 하면서 원망의 소리를 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고 불평했습니다(5절).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 내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이렇게 불평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더 이상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쳐 가야 할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4절)를 “악한 곳”(5절)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곳(광야)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5절). 그들이 원하는 이것저것이 없기에 광야는 그들이 보기에 악한 곳이었습니다. 과연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였던 것처럼 악한 곳입니까? 결국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은 후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렸습니다(6절).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6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아론의 지팡이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습니다(8절). 그러나 모세는 총회를 반석 앞에 모으고 그들에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10절)고 분노와 원망의 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10절) 손을 들고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11절).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많은 물을 솟아나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물을 마셨습니다(11절). 그리고 “이를 무리바 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기 때문입니다(13절). 그러나 모세와 아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12절). 곧, 모세와 아론의 범죄는 불신과 불성결이었습니다(박윤선). 그 결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12절).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의 지도자들인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과연 광야란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였던 것처럼 악한 곳입니까?

광야란 곳은 절대로 악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란 곳은 선한 곳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광야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또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광야라는 곳에서 먼저 우리의 죄악들이 들춰져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이나 불성결이 들춰져야 합니다. 우리의 다툼과 원망 및 대적한 죄악 된 행위도 들춰져야 합니다. 또한 탐심과 욕심의 죄도 들춰져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 3장 17-19절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

우리는 광야에서 이것저것 없는 것에 대한 악평을 할 것이 아니라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찬송가 102장). 우리는 광야에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광야만큼 이 비결을 배울만한 좋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찬송가 82장의 고백이 있어야합니다:

“1.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뢴 마음뿐일세

4. 나의 진정 사모 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님뿐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분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이 되심을 우리는 광야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고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반가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광야만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배울 만한 곳이 없습니다(신8:3).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의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즐기는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한 소성케 돼야 합니다. 그 곳에서 우리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넘치는 생수의 강을 체험해야 합니다(요7:38). 우리는 광야에서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인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진정한 약속의 땅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더 이상 궁핍함이 없고 또한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 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 것입니다.

광야에서 빛어지길 기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결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과 걱정되는 일, 염려스러운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의식주로 인해 걱정하며 염려하기도 하며 또한 우리는 궁핍함 속에서 괴로움을 겪기까지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의 환란을 통해 심각하게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어렵고 힘든 일로 말미암아 놀라며 두려워할 때도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자문해 보지만 그리하면 할수록 우리는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며 심지어 원망하기까지 할 때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역경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헤쳐 나아가려고 이리저리 노력을 해보지만 그리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일이 꼬이는 것 같아 실패감도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막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꼭 갇힌바 된 것 같은 상황에서 그 문제와 역경이 지속될 때에 우리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인내에 한계를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 속에서 심지어 절망까지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놀림으로 인해 탈진하기까지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뼈저리게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위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회일까요? 비록 우리 인생의 위기가 우리를 변질시키는 위기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조차도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변화의 기회로 만들어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위기는 썩어가고 있는 살을 도려낼 수 있는 회개의 기회요, 확성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위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즉,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마12:28)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 천국 백성들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위기와 불가능함과 실패와 연약함과 궁핍함과 분쟁과 불평과 염려와 슬픔과 막힘과 갇힘과 탈진과 고난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원망의 소리와 마음의 놀림과 환락과 죽음까지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사(롬8:28)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기회의 장소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의 나라입니다!